



Hello! I am Sister Kathleen Delaney. I was born in Lawrenceville, Pennsylvania of two loving parents, Patrick and Margaret Delaney. My twin brother Bob and I were fourth and fifth of nine children, four girls and five boys. Our parents blest us with their good example of living the Catholic faith. We lived near St. John the Baptist Church where my brothers served as altar and choir boys. The

Sisters of Charity of Seton Hill taught all of us in every grade.



It was in my senior year that Sister Miriam Rita surprised me when she asked if I had

ever thought of being a sister. I was humbled that she thought of me. My parents fully agreed and trusted my decision. I entered the community seventy one years ago on September 8, 1951. I spent most of my



community life teaching primary grades in several dioceses. The highlight of each year for me was preparing children for the sacraments of Reconciliation and First Communion.

In 1999, Sister Gertrude Foley and Sister Jean Augustine offered me an opportunity for a sabbatical year at St. Stephen Priory in Dover, Massachusetts. The sabbatical offered me the experience of a diverse religious community. After sabbatical, for the next ten years, I was assigned as manager of Etna Commons, a high rise apartment building providing safe



and affordable housing for low income seniors. After retiring from Etna Commons, I continue in this ministry a few days a week assisting the manager at another high rise, Germaine Harbor in Bethel Park outside of Pittsburgh. Here I work with Sisters Joyce Serratore and Vincent Marie Sidick. In both of these experiences I enjoy listening to the seniors' stories and joining in their activities.

Midway through my twelve years at Germaine Harbor, the Generalate moved from Chicago to the former St. Germaine convent. Now we are neighbors! These days I spend time quietly in the presence of the Blessed Sacrament appreciating my life in community with the sisters at Elizabeth Seton Convent in Pittsburgh.





안녕하세요! 캐슬린 딜레이니 Kathleen Delaney 수녀입니다. 저는 펜실베이니아주 로렌스빌 Lawrenceville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인 아버지 패트릭 딜레이니 Patrick Delaney와 어머니 마가렛 Margaret 슬하에 태어난 5남 4녀, 9남매 중에 쌍둥이인 저와 밥 Bob은 넷째와 다섯째입니다. 부모님은 가톨릭 신앙을 살아가는 훌륭한 모범을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성 요한 세례자 St. John



the Baptist 성당 근처에 살았습니다. 남자 형제들은 본당에서 복사와 소년 성가대원으로 활동했고, 학교에서는 우리 모두 사랑의 씨앗 수녀님들에게 배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반일 때 미리암 리타 Miriam Rita 수녀님이 저에게 수도자가 된다는 생각을 해 봤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사실 저는 좀 놀랐고 수녀님이 저를 생각하고 계셨다는 사실에 몸 둘 바를 몰랐지요. 부모님은 제 결정을 전적으로 믿고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71년 전인



1951년 9월 8일에 입회했습니다.

저는 수도생활의 대부분을 여러 교구의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며 보냈습니다. 매년 저에게 가장 중요한 행사는 아이들의 고해성사와 첫영성체를 준비하는 일이었지요.

1999년에는 걸트루드 폴리 Gertrude Foley 수녀님과 진 어거스틴 Jean Augustine 수녀님이 저에게 매사추세츠주 도버 Dover에 있는 성 스테파노 St. Stephen 수도원에서 안식년을 보낼 기회를 주었습니다. 안식년 동안 저는 다양한 수도공동체를 체험했습니다. 안식년 이후 10년 동안 저소득층 노인에게 안전하고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는 아파트인 에트나 커먼즈 Etna Commons에서 관리자로 사도직을 했습니다. 에트나 커먼즈에서 은퇴한 이후에도 피츠버그 외곽 베텔파크 Bethel Park에



있는 아파트인 저메인 하버 Germaine Harbor에서 같은 사도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며칠씩 관리자를 협조하는 일을 합니다. 여기서는 조이스 세라토레 Joyce Serratore 수녀님과 빈센트 마리 시딕 Vincent Marie Sidick 수녀님과 함께 일하고 있어요. 노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함께하는 일이 참 즐겁습니다.

저메인 하버에서는 12년 동안 일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일하는 중에 총원이 시카고에서 성 저메인 St. Germaine 성당의 예전 수녀원 건물로 이사를 왔습니다. 지금은 이웃이지요! 요즘은 피츠버그에 있는 엘리사벳 씨튼 분원에서 수녀님들과 함께 살면서 공동체 안에서의 제 삶에 감사드리면서 성체 앞에서 고요히 시간을 보냅니다.

